

미국의 자국학 연구: 세계화 속에서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은기수**

I. 머릿말	IV. 미국학의 정립을 둘러싼 논쟁
II. '미국학'의 학문적 발달	V. 미국학 프로그램의 한 예
III. 미국학의 제도화	

I. 머릿말

이 연구는 한국학의 학문적 성격을 비교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미국에서 미국학(American Studies)의 발달과 학문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미국 바깥에서 어떤 학자가 '미국'에 관하여 연구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학이나 경제학 등 전통적인 분과학문(traditional discipline)에서 찾지 않는다면 그의 학문적 정체성은 지역학(Area Study)으로서 미국학을 전공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미국인 학자가 그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 대하여 연구한다면, 이 때의 미국에 대한 연구인 미국학은 지역학연구의 개념에 속하지 않

* 이 연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1997년 기획과제 '한국문화 특강 강좌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는 미국학이다. 이는 한국인 학자가 한국에서 ‘한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 지역 학이 아닌 한국학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 그러면 미국학자가 미국에서 ‘미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미국학’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존의 학문분야에서 미국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과 ‘미국학’에서 ‘미국’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미국학’도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II. ‘미국학’의 학문적 발달

미국은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도, 좀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는 영국이나 유럽의 강한 영향하에 있다. 미국문화에 관해 많은 업적을 내놓고 있는 역사학자인 레바인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미국인들은 문화나 지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식민지적인 심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유럽의 역사와 문학 더 넓게는 유럽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1920, 30년대까지도 미국의 학계에서는 미국인에 의한 문학과 미국인 자신들의 역사보다도 유럽 특히 영국문학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사를 소위 정통 분야로 여기고 연구해 왔다. 이 당시 미국의 학문적 엘리트들은 미국은 단지 유럽의 延長으로, 그것도 열등한 연장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문학의 경우 대부분의 영문학 과에서 미국문학은 고전적인 영국문학의 저자들이 확립해 놓은 문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문학을 무시하고 있었다. 역사학분야의 경우 전통

1) 모든 학자가 한국에서 ‘한국’에 관해 연구한다고 해서 ‘한국학’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 또 자신을 한국 학자라고 칭하는 학자도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전통적인 분과학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미국학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 자신들을 전통적인 분과학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미국학 전문가(Americanist)’로 칭하는 학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학이란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한국학 전문가(Koreanist)’로 칭하는 학자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 Lawrence W. Levine, 1986. *Highbrow Lowbrow: The Emergence of Cultural Hierarchy in Americ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p. 2.

적인 역사학의 접근방식은 정치, 정부 또는 전쟁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발달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³⁾ 그러나 1920, 30 년대에 이러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국만의 고유한 경험’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미국학연구의 효시로 꼽히는 연구가 1927년 패링턴(Vernon Louis Parrington)에 의한 『미국사상의 줄기(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로 출간되었다.⁴⁾ 이 연구는 기존의 학문분과들이 자신들의 학과를 대학에 만들어가고, 학회를 조직하며, 분과학문 분야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학회지를 발간하고, 자신의 학문적 규범에 따라 보상과 체재를 부여하는 등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기존 학문분야와는 달리 아무런 조직적인 기반 없이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패링턴의 책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 유럽과 구별되는 미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연구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책의 발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소위 미국학연구라는 것의 대상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엄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경험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와 이 경험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적인 합의가 학자들 사이에 느슨하게 이루어진 채로 발전하게 되었다.⁵⁾

초기 미국학연구를 시작한 학자들은 역사학과 문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역사와 문학이 유럽의 역사나 문학과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가까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인에 의해서 쓰여진 위대한 문학작품 속에 미국인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20, 30 년대에 미국학연구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950년대까지 통합적인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synthesis)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통합적인 지성사를 구축하려는 미국학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⁶⁾

첫째, 미국에는 미국만의 독특한 정신인 미국정신(American Mind)이 있다 이 가

3) Iain Tyler May, 1996. “‘The Radical Roots of American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November 9, 1995,” *American Quarterly*, 48(1996), pp. 182 ~183.

4) Gene Wise, 1979. “‘Paradigm Dramas’ in American Studies: A Cultural and Institutional History of the Movement,” *American Quarterly*, 31(1979).

5) *ibid.*, pp. 300 ~306.

6) *ibid.*, p. 306.

정은 미국인들은 모두 동질적인 정신세계를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인들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이 미국정신은 유럽의 구대륙이 아닌 신대륙에 자리잡고 있어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미국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언제나 희망에 차있고, 순결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실용적이며 그러면서도 이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셋째, 이 미국정신은 미국인이란면 누구에게서나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문학가들, 예를 들면, 에머슨, 멜빌, 휘트먼 등의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초기 미국학연구자들은 미국의 고전작품 속에 나타나있는 미국정신을 추출하고, 재해석하며, 고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넷째, 미국정신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미국의 지성사에서 지속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 진보, 실용주의, 초월주의, 자유주의 등 미국정신에 포함되는 독특한 요소들은 미국의 전 과거에 걸쳐 존재한다.

다섯째, 이러한 미국정신은 대중문화 혹은 하위문화보다는 고급문화에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 미국학연구자들은 ‘미국’이 지니고 있는 근본의미(**the fundamental meaning of America**)를 탐구하는 것이 기본목표였다. 위의 가정들은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 데 도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미국학연구자들은 미국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총체로 여겼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전통적인 학문분과들은 이를 파악할 수 없고 학제적인 미국학연구가 분열된 미국정신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제적인 미국학연구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⁷⁾

미국학연구에 직접 관련되어 통합적인 지성사를 구축하려고 노력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예술가나 식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상경험을 포착하고 기록하는 데 열심이었다. 미국학이 태동하기 시작하던 20세기 전반부에 나타난 지역주의에 대한 깊은 관심, 민속자료의 수집, 당시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영상촬영 등은 맹목적이고 지방적인 색채가 강한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가 아닌, 민족적 자아

7) *ibid.*, p. 307.

발견과정의 경험으로서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⁸⁾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킨 한 연구는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미국을 하나의 문화로 파악하고,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유형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복합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⁹⁾

미국학은 나찌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발전과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본래 미국학은 전통적인 학문분과처럼 명확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을 발전시키면서 성장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고유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했고, 초기 미국학연구자들은 고유의 경험을 정신이나 사상의 측면에서 주로 파악하고자 했다. 미국의 경험에 다른 사회의 경험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미국학의 주요 과제의 하나였고 또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미국학은 특별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학은 사건(events)이나 여러 형태의 운동(movements)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비록 미국학의 뿌리를 1920, 30년대에 찾아볼 수 있지만 미국학의 본격적인 발달은 주로 제도화와 맞물려서 미국이 겪은 커다란 사건인 제2차 세계대전과 종전 이후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¹⁰⁾ 이미 나찌가 등장하고 전체주의의 위협이 세계로 번져가기 시작했을 때 “과시즘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세계에서 서구문화의 보존자로 미국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하나로 모델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론적인 주장이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학은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미국의 의미를 부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부활에 대한 관심은 미국학연구에서 국민성(national character)에 대한 연구를 부흥시켰다.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의 국민성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의 국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나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국민성에 관한 연구가 이 시기 미국학연구의 한 축이 되었다. 국민성이란 개념은 미국에서 1930년대에도 한창 논의가 되었었지만 인종차별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어 논란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다시

8) Philip Gleason, “World War II an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Studies,” *American Quarterly*, 36(1984), p. 345.

9) Warren I. Susman, “The Thirties,” Stanley Coben and Lorman Ratner(eds.), *The Development of an American Culture*(St. Martin’s, 1983). Philip Gleason, op. cit.에서 재인용.

10) Allen F. Davis, “The Politics of American Studies,” *American Quarterly*, 42(1990).

새롭게 등장한 국민성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자들이 지난 시기의 인종차별적인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전쟁 말기에는 '국민성의 과학'이라고 일반인들이 존경스럽게 말할 정도가 되었고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에서 각광을 받는 연구분야였다.¹¹⁾

국민성연구보다도 미국학의 발달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상징-신화-이미지(symbol-myth-image) 학파의 부상이다¹²⁾ 상징-신화 이미지 학파의 연구경향은 그 이전 시기의 미국학 연구경향과 비교해 볼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통합적인 지성사의 구축을 추구하던 1930, 40년대는 민족주의적이고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미국학이 득세한 시기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급진적인 학자들에 의한 진보주의 또는 급진주의가 전면에 등장한 시기였다. 대공황기 및 그 이후의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 안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심화되고 산업자본주의의 악영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미국학 연구자들은 비단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급진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미국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면서 『미국의 르네상스(*The American Renaissance*)』라는 고전을 저술한 매티슨(F. O. Matthiessen)의 경우 헌신적인 사회주의자였으며 미국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문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¹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신화와 상징분석을 통해 미국문화를 분석한 미국학 연구자들에게도 그 이전 시기 미국학에 종사하던 연구자들이 지녔던 날카로운 문제

11) Otto Klinberg, "A Science of National Characte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1944); Alex Inkeles and Daniel J. Levinson, "National Character: The Study of Modal Personality and Sociocultural Systems," Gardner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vols(Addison-Wesley, 1954). 국민성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미드(Margaret Mead)와 베네딕트(Ruth Benedict)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인류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정부기관에 근무하거나 정부에 협조하였다. 특히 전쟁 동안에 국민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지, 적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무공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미국군인들이 토착인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한 주제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분야는 인류학에서 '문화와 국민성 학파'의 시각을 이용한 것인데 상이한 문화의 기본적인 인성구조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장하는 개인들의 정신에 어떻게 각인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심리학적 가정과 양육유형에 대한 민속지적인 관찰을 결합한 것이다.

12) Elaine Tyler May, *op. cit.*

13) 매티슨은 산업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비전을 정치에 끌고들어가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에 대한 주요 비판가로 활동하였다

의식과 비판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 미국학은 냉전시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었다. 냉전시대에 진입하면서 미국사회는 맥카시 선풍에 휩싸였다. 누구라도 단지 정치적으로 좌익의 경향이 있다고만 판단되면 직장을 잃고 정죄되는 시기에 인문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안전하기 위해 역사적인 배경에는 눈을 감고 구조나 순수한 형식에 관심을 두는 신비평주의가 득세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의 경우 밀즈(C. Wright Mills)나 리스만(David Reisman)과 같은 예외의 경우도 있었지만 신념이나 가치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밀쳐두고, 대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띠는 계량적 분석이 우세하게 되었다. 미국학의 경우 문화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념이나 가치를 연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의 고전문학 작품이나 위인들의 사상의 분석을 통해 미국사회를 관통하면서 미국사회를 다른 사회와 예외적으로 구별되게 하는 신념과 가치를 밝히면서도 세계대전 이전 미국학이 성립하던 시기에 미국학 연구자들이 지녔던 자유롭고 비판적인 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미국은 유럽의 열등한 연장에 불과하다거나 미국문학은 영국의 고전작품이 설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는 당시의 지배적인 성격에 대항하여 미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찾아 나섰던, 당시로는 학문의 이단아와 같은 진보적인 성향도,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부상하여 냉전시기에 미국학의 주류를 이룬 상징-신화-이미지 학파에게서는 찾기 어려웠다. 반면에 초기 미국학 연구자들이 지녔던 ‘미국은 백인 프로테스탄트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는 동질적이고 무계급의 사회’라는 일종의 합의론적인 시각으로부터 상징-신화-이미지 학파의 미국학 연구자들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상징-신화-이미지 학파에서는 미국의 문화가 “반동적이고, 복고적이며,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고, 반민주적인 백인 남성 프로테스탄트 앵글로색슨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민주주의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데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집단의 창의력과 활동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¹⁴⁾

그러나 미국학연구는 1960년 중반에 본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시민권운동, 베트남전쟁,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사회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여성, 소수인종, 노동자, 동성연애자 등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표상에 미국학

14) Elaine Tyler May, *op. cit.*, pp. 188 ~189.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이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학 연구에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인종, 계급, 그리고 성(gender)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1960년대의 이러한 상황은 그 이전에 미국학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미국은 동질적인 사회이며 문화 혹은 미국은 하나의 통일체’라는 가정을 무효화시켰다. 여성학자들이 미국학의 연구에 참여하는 추세가 증가하면서 여성문제가 미국학의 주요 연구분야로 부상되었다. 백인 중심의 동질적인 사회라는 가정이 부인되면서 소수인종 및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미국학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여성, 인종문제의 부각과 함께 계급문제 또한 미국사회의 중요한 모순의 하나라는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많은 미국학 연구가 문화적 헤게모니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 저항을 받는지, 그 본질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오늘날 미국학은 흑인 연구(Black Studies 또는 African-American Studies), 여성학, 대중문화 연구, 민속, 물질문화, 영화 연구, 소수인종연구, 제3세계 연구, 인디언 연구 등 아주 다양한 분야를 끌어들이거나 함께 연합하면서 연구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III. 미국학의 제도화

미국학은 1920년대 말부터 조금씩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도화는 전통적인 학문분과가 그러했듯이 학과가 만들어지고, 학회가 설립되며, 자체적인 학회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진다. 미국학도 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제도화의 길을 걸었다.

미국학의 제도화는 1929년 『미국문학(American Literature)』이라는 잡지가 창간되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에는 현대언어학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가 미국문학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1년에 예일대학에서 미국문학자인 윌리엄스(Stanley T. Williams)와 역사학자인 가브리엘(Ralph Henry Gabriel)이 공동으로 ‘미국의 사상과 문명화(American Thought and Civilization)’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최초로 대학에서 미국학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33년에 예일대학은 역사, 예술과 문학과 (Department of History, the Arts and Letters)라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그 안에서 미국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초의 미국학 박사학위가 예일대학에서 그리스월드(A. Whitney Grisworld)에게 수여되었다. 1937년에 윌리엄스는 『미국의 정신(The American Mind)』라는 책을 편집하여 '미국의 사상과 문화' 강좌의 교과서로 사용하였고, 이 책은 그 후 미국 전역에서 미국학에 해당하는 강좌의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1936년에는 조지워싱턴대학에 미국학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같은 해에 하버드대학에 '미국문화의 역사'라는 대학원과정의 학제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잇달아 1937년에는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역사학과의 니콜스(Roy Franklin Nichols)와 문학과의 브래들리(Sculley Bradley)가 공동으로 주임교수의 직을 맡아 '미국문학'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40년에 하버드대학은 첫 미국학 박사학위를 스미스(Henry Nash Smith)에게 수여하였다¹⁵⁾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에서 1947년까지 60여 개의 학교가 학부과정에서 미국학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15개 학교는 석사나 박사학위 과정까지 개설하고 있었다¹⁶⁾

미국학의 제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미국이 민주주의진영의 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부가 미국학 분야에 유입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 미국학의 제도화 운동은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단일 교과목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정착으로, 개인의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학문적인 지식에 집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전제에 충실하게 전개되었다¹⁷⁾ 전체주의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일대학의 총장이던 싸이머(Charles Seymour)는 "우리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발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인 자산을 이해하고 자유,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의 기구들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이다"라고 하면서 미국학연구에의 지원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¹⁸⁾ 이 당시 미국에는 기부금을 내면 세금계산에서 그만큼 공제해주는 세금제도, 자식들에게 명목적으로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전통, 그리고 기업의 대사회적 의무로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정신이 어울려 카네기재단, 록

15) 스미스는 1950년에 『처녀지(Virgin Land)』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미국학의 고전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6) Gene Wise, *op. cit.*, pp. 305 ~306.

17) *ibid.*, p. 308.

18) Allen F. Davis, *op. cit.*, p. 355.

펠러재단, 코우재단 등 거대 사립재단이 등장해 있었다 이들 재단은 미국학 프로그램이 대학에 만들어지고, 유지되거나 혹은 확대될 수 있도록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¹⁹⁾ 각 재단은 단지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미국학 연구자들의 연구도 지원하였다.²⁰⁾

1949년 『아메리칸 쿼터리(American Quarterly)』라는 미국학 잡지가 발간되기 시작했고 1951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인 미국학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 ASA)가 조직되었다. 미국학학회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²¹⁾ 이 두 가지 설은 미국학학회의 성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 편에서는 미국학학회가 학교의 범위를 넘어 미국문화 연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미국학이 학문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학문분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학학회가 철저하게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설이 맞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미국학의 첫 학술회의가 워싱턴에 있는 의회도서관에서 열려 첫 번째 설이 맞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두 번째 주장을 한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스피러가 카네기재단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학회의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미국학학회는 전문학회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²²⁾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학이 학교 안에서 과 혹은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학문분야로서의 정체성의 제도화인 학회를 조직하고, 학회의 기관지를 발간함으로써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음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미국학이 여러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미국학이 전통적인 학문분과와

19) 재단들이 미국학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937년에 시작된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미국문명화’ 프로그램에 대해 록펠러재단은 1949 년과 1954 년 두 차례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4년 펜실베이니아대학은 역사학과의 코치랜(Thomas Cochran)과 문학과의 스피러(Robert Spiller) 두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 ‘20세기 미국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이 세미나는 카네기재단이 이 대학에 5년 동안 150,000불을 기부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베닝턴대학은 1950년 카네기재단으로부터, 바나드대학은 1952년 카네기재단으로부터, 스탯슨대학은 1955년 메릴재단으로부터 미국학의 활동이 정착되고 유지되며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았다.

20) 예를 들어 미국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미스의 『처녀지』도 헌팅턴도서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쓰여졌다. 그 외 주요한 예는 Gene Wise, *op. cit.*, p. 310 참조.

21) *ibid.*, p. 356.

22) *ibid.*.

같은 수준에서 독립된 학문분과로 인정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미국학의 연구대상이나 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다시 고찰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현재 미국의 대학에서 미국학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미국학의 성격의 일면을 살펴본다.

우선 미국학이 전통적인 학문분야와 같은 수준의 학문분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미국의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펜실베이니아대학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미국의 대학에서 법학, 의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은 특수대학 및 특수대학원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학문분과라고 부르는 학문분야는 대개 文理大(School of Arts and Sciences)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경우 문리대에 인류학, 아시아 및 중동연구, 생물학, 화학, 고전연구, 경제학, 영문학, 민속학, 지질학, 독어독문학, 역사학, 수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종교연구 등이 학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 문리대 안에 학제적 대학원과정(interdisciplinary graduate groups)이 있다. 여기에는 미국문명학(American Civilization), 고대사, 인구학, 국제학, 사회노년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분류로 학제간 프로그램(interdisciplinary program)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프리카-미국인(즉 흑인) 연구 프로그램, 미국문명학, 아시아-아메리칸 연구, 생화학, 중국어프로그램, 도시연구, 여성학 등이 속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 전통적인 학문분과 말고도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현대사회에서의 관심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학문분야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학문분야는 전통적인 학문분야처럼 단일한 전공자들에 의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학제간 혹은 다학문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학제적 대학원과정에 속해 있는 인구학은 학부과정이 없고 대학원과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학 대학원과정은 인구학 전공으로 대학원생을 모집한 뒤 인구학 대학원과정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교과목과 인접 학문분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통합운영하면서 교육시킨다. 그리고 나중에 박사학위논문을 쓰면 인구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미국학 프로그램인 미국문명화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개설한 과목과 인접 학문분야의 과목을 통합운영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미국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미국학 박사학위는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이다.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 사이에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과학재단, 미국보건연구원, 인문학재단, 미국교육부, 미국농업부의 의뢰를 받아 시카고대학에 있는 전국여론조사연구소(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조사를 실시한 설문지의 부록에는 박사학위를 전공분야별로 묶어 제시되고 있다. 전공분야는 먼저 대분류로 심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으로 나뉘어진다. 인문학은 다시 역사, 문학, 외국어 및 문학, 그리고 기타 인문학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과학에는 인류학이나 사회학, 지리학, 정치학, 경제학뿐만 아니라 지역연구까지도 독립된 학위의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학 박사학위(분류번호 770)는 인문학분야의 박사학위로 분류되어 고고학, 예술사, 음악학 등과 함께 기타 인문학분야의 박사학위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박사학위의 분야로 미국학이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미국학이 연구대상이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과연 전통적인 학문분야와 같은 수준의 학문분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 이전에 일단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미국학의 정립을 둘러싼 논쟁

위에서 우리는 미국학의 형성과 그 내용의 변천, 그리고 미국학의 제도화를 살펴 보았다. 비록 미국의 대학에서 미국학이 전통적인 학과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고, 미국학 박사학위가 미국의 학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독립된 학위수여분야로 인정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학의 학문적 성격을 그 연구대상 및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학학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스티븐스(John Stephens)는 미국학을 “과거와 현재의 미국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인문학적 이해를 신장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미국에 관한 생각을 교환할 수 있도록 주선하며, 세계 사회와 연관시켜 미국인의 삶의 양식을 파악하는 독특한 학제적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학은 그 성격에 있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면서 학제적

(interdisciplinary)인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전문영역을 공유할 수 있는 場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학은 그 자신의 연구에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학제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여성학, 언론연구, 정치문화연구 등 새로운 분야가 미국학 프로그램 속으로 통합되어 연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신흥 분야와의 협동작업을 통해 미국학 연구자들은 미국사회의 신화와 실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미 확립되어 있는 분과영역 안에서는 적절히 소화될 수 없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복잡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미국학의 전통적인 관심사를 문화와 시민성(citizenship)에 관한 문제로 대체시킬 필요 없이 학자들 사이에 학제적인 상호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²³⁾

스티븐스의 진술이 모두 미국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현재 미국학의 동향과 지향하고자 하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성립 초기에 미국학은 미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추구했다. 이 독특한 경험은 통합적인 지성사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어 1950년대에는 전쟁과 냉전의 영향으로 국민성연구가 미국학연구의 일부가 되었고, 상징-신화-이미지 학파의 연구는 미국사회의 신화와 실체를 주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미국학은 미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이루고 있는 문화적 양상을 밝히고 거기에 성, 계급, 인종이라는 주요한 매개변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국학은 미국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학에서 다루는 문화의 개념이 다른 개별 학문분야에서, 예를 들어 인류학에서 정의하고 사용하는 문화의 개념과 차별성이 없다면 구태여 미국학에서 연구되는 미국문화가 다른 학문분야에서 연구되는 것과 차별성을 지닐 수 없고 이는 더 나아가 미국학이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설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미국학이 다른 학문분야들과의 학제간 연구분야로 인정을 받고 분과학문이 지닌 전문화, 세분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학 나름의 연구대상과 방법

23) John F. Stephens, “Americ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1997.

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²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970년대에 펜실베이니아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학의 주류를 형성한 상징-신화 이미지 학파에서는 문화를 문학작품의 내적인 텍스트를 해독하면서 찾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문화연구는 경험적인 근거 없이 특정 텍스트의 해독을 통해 발견한 현상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미국학 연구자들은 문화에 대해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중시하여 어떤 특정한 문학작품을 분석하더라도 그 자체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과 그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더 넓은 문화 사이에 사회구조가 매개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지향에 대해 인문학적 연구방법을 중시하던 기존의 상징-신화 이미지 학파에서는 사회과학의 비인간성과 천박성, 그리고 기계적 성격을 들면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인문학적 연구방법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미 1950년대의 주요한 미국학 연구업적에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가 기여하는 측면이 증명되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의 미국학 연구는 신민족지법, 인지인류학, 민족의미론 등 새로운 방법론을 발전, 적용시켜 문화연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²⁵⁾

미국학이 미국문화에 대한 연구이며 이 때의 문화개념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정립된 문화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해도 미국학이 다른 학문분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여전히 독립된 분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스티븐스는 현재 미국학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도전 가운데 하나로 미국학과 전통적인 학문분과의 관계를 들고 있다.²⁶⁾ 기존의 분과학문은 여성학이나 도시연구 등 학제간연구

24) 우리는 동일한 예를 지역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경일은 미국의 지역연구는 최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역연구가 학문분과로서 위기에 처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연구가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에 무관심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역연구는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문화와 다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실패하여 독자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연구분야로 인정받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제적인 연구분야라는 주장도 각 학문분과의 방법론과 이론을 빌려 특정지역에 단순히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오히려 전통적인 학문분과의 정통성만을 강화시켜주고 지역연구 자체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김경일,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나남, 1995);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제5권 제8호(1996).

25) Gene Wise, *op. cit.*, pp. 320 ~323.

26) John F. Stephens, *op. cit.*.

들의 연구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접근방식인 고유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대신 여러 학문분야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학제간학문분야의 생존 가능성에 깊은 회의론을 가지고 있다. 미국학에 대한 기존의 분과학문의 문제제기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이다. 와이즈는 이 문제에 관해 미국학이 더 이상 학문의 최전선에 서있지 않다고 미국학을 통렬히 비판한다.²⁷⁾ 미국학은 더 이상 창조적이지도 않고 미국학을 넘어서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며 다른 학문분야가 이룩한 업적에 기대어 사는 기생 학문분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스도 1950년대 단일한 미국학 연구방법론을 찾고 미국인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듯이 1970년대에 미국학 연구에 새로운 반성이 일면서 미국학의 단일 이론을 찾아 이 분야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진단하고 있다.²⁸⁾ 지금도 미국학의 연구대열에 합류한 많은 젊은 학자들이 해체주의, 신역사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미국학에의 유일한 접근방식을 찾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데이비스는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학 연구자들은 “많은 이론과 접근방법을 받아들이고 미국문화를 수많은 대중에게 해석해 보임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학문분야와의 차별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학이 전통적인 학문분과와는 상당히 다른 지향을 추구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스티븐스는 전통학문분야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론과 그들의 통찰력을 미국학연구에서 엄격하면서도 지성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미국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학연구에 대한 기존 학문분과의 비판을 피해나가려 한다.²⁹⁾ 뿐만 아니라 기존 학문분야의 학자들은 미국학에서 다루는 주제나 소재에 익숙치 않아 처음에는 불편해 하지만 언제나 미국학의 주제를 받아들인다든지, 기존 학문분과의 학자들이 학제적인 미국학연구에 지적인 노력을 경주해 기여하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미국학과 전통적인 학문분과와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미국학의 현재상태를 두고 전통 분과학문 분야에서는 미국학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미국학학회의 회원이 오히려

27) Gene Wise, *op. cit.*, p. 315.

28) Allen F. Davis, *op. cit.*, p. 369.

29) John F. Stephens, *op. cit.*.

증가하고 있고 미국학이 문화연구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 분과학문 분야에서 문화연구에 관련된 학자들이 미국학을 학문의 고향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학의 정의 자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미국학에 대한 정의 혹은 이해가 미국 안에서와 미국 밖에서 다르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안에서 미국학자로 자신을 정의하느냐 아니면 전통적인 분과학문분야에 속하면서 미국학연구에 참여하느냐에 관계없이 그들은 미국학을 미국적인 것과 전통적인 분과학문의 울타리 안에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주제들을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하는 분야로 강조한다. 그러나 주로 미국 밖에서는 미국학을 미국이라는 지역에 대해 역사학이나 정치학 또는 문학 등의 전통적인 학문분야에서 수행하는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미국학에 대해 상이한 이해와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자국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이는 바로 한국에서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제간 학문분야로 정립하고자 시도할 때도 똑같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한국 안에서 한국인 학자가 한국적인 것에 관해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한국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학의 경우처럼 한국문화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한국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한국 밖에서 한국에 관해 연구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수행하는 지역연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V. 미국학 프로그램의 한 예

연구대상과 방법론이라는 기준으로 독립적인 학문분야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다루어야 하는 쟁점이 어느 한 전통적인 학문분과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접미어로 ‘-studies’라는 학문분야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미국학은 “-studies”로 표기되는 다른 어떤 학제간 분야보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학제적인 학문분야로 정립하기 위해 제도화에 힘을 기울였다. 학문분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학문세대가 단절 없이 재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미국학자를 길러내는 대학원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학 대학원이 미국학의 발달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살펴 볼 점은 학문후속세대를 길러내는 대

학원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학 분야에서 최상위 5위권 안에 속하는 미네소타대학의 미국학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학의 최근 경향을 검토해본다.

미네소타대학의 경우 미국학 대학원 프로그램은 박사학위과정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석사학위는 박사과정 동안에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취득할 수 있다. 미국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들은 15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³⁰⁾ 필수과목은 미국학입문에 관한 세미나로 세 과목을 수강해야한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비교문화 과목을 두 과목을 들어야 하고, 미국의 문화다원주의에 관한 두 과목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 아래에 제시된 특정한 주제에 관한 과목을 두 과목 선택해야 한다.

1. 미국의 지리적, 문화적 지역
2. 국제적 시각에서의 미국
3. 성, 인종 그리고 계급
4. 물질 문화와 대중 문화
5. 문학, 역사와 문화
6.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법
7. 사회와 사회과정
8. 미국에서 종교와 영성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거쳐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 예를 들어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문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여섯 과목을 들어야 한다

위에 제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보면 역사학과 문학을 배경으로 출발한 미국학이 현재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미국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학이나 역사학을 주전공으로 하면서 미국학을 한다면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거쳐 선택하게 되는 여섯 과목을 모두 문학이나 역사학 과목으로 택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과목은 대부분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학입문 과목이거나 사회과학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30) 미네소타대학은 학기제가 아닌 쿼터(Quarter)제로 운영되고 있다. 1년에 최대 4쿼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학기제보다 과목수가 훨씬 많게 된다.

박사과정은 총 20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위의 석사과정에서 들어야 하는 과목과 대동소이한데 미국학에 관한 핵심과목으로 여섯 과목을 들어야 하는 점이 크게 다르다. 즉 석사과정에서는 미국학의 필수 핵심과목으로 미국학입문에 관한 세미나를 두 과목만 들으면 되지만 박사과정에서는 미국학입문에 관한 세미나가 미국학의 역사, 이론, 방법론으로 나뉘어 세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미국학실습이라는 한 과목이 더 첨가되며, 마지막으로 박사논문세미나를 두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게 되어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여덟 분야에서 한 분야를 택해 두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반면에 박사과정에서는 ‘사회와 사회과정’ 분야가 빠져 일곱 분야에서 한 분야를 택해 두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석사과정과 동일하다.

미국학이 쇠퇴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학제적 학문분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미네소타대학의 미국학 대학원 프로그램은 미국학의 현주소가 사회과학 중심의 문화연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³¹⁾

참고문헌

- 김경일,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 및 쟁점들」,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나남, 1995.
- _____,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제5권 제3호, 1996.
- Bailis, Stanley, 1974. “The Social Sciences in American Studies: An Integrative Conception,” *American Quarterly*, 26, 1974.
- Davis, Allen F., “The Politics of American Studies,” *American Quarterly*, 42, 1990.
- Gleason, Philip, “World War II an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Studies,” *American Quarterly*, 36,

31) 이 논문을 심사한 한 익명의 논평자는 필자의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였다. 미국학연구가 사회과학적 경향을 띄게 된 것은 펜실베이니아대학을 중심으로 미국학연구 프로그램이 강할 때까지이고, 1994년에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미국학과가 미국학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아메리칸 퀴털리』의 사무국이 워싱턴(Washington, DC)으로 이전한 후 미국학연구의 중심은 사회과학적 접근으로부터 문학, 역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적 문화연구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미국 대학의 여러 미국학 프로그램 및 미국학 잡지에 실린 논문, 그리고 미국학 프로그램에서 배출되고 있는 학위논문 등을 분석하는 것은 후속연구에서 다룰 것을 기약한다.

1984.

- Klinberg, Otto, "A Science of National Characte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 1944.
- Inkeles, Alex and Daniel J. Levinson. "National Character: The Study of Modal Personality and Sociocultural Systems," Gardner Lindzey(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vols. Addison-Wesley, 1954.
- Levine, Lawrence W., *Highbrow Lowbrow: The Emergence of Cultural Hierarchy in Americ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May, Elaine Tyler, "The Radical Roots of American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November 9, 1995," *American Quarterly*, 48, 1996.
- Stephens, John F., "Americ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 Overview," 1997.
- Susman, Warren I., "The Thirties" Stanley Coben and Lorman Ratner(eds.), *The Development of an American Culture*, St. Martin's, 1983.
- Wise, Gene, "'Paradigm Dramas' in American Studies: A Cultural and Institutional History of the Movement" *American Quarterly*, 31, 1979.

주요어

미국학, 상징-신화-이미지 학파, 미국의 제도화, 미국학 프로그램 학제간 학문, 분과학문, 한국학